



한인회비와  
한인회 발전을 위하여



친애하는 교민여러분! 댁내 모두 안녕들 하시오며 하시는 일 또한 뜻대로 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한인회 금년도 책임봉사자로서 시작한지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교민 여러분께 큰 봉사도 한것없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금년초 제가 신년인사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1000세대」 한인회비 내기 운동이 아직 많은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월5일부터는 저희 한인회에 사무실 직원이 아침 9시부터 오후4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봉사업무를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한인회에서는 한인주소록을 6월15일부터 7월30일경까지 정리하여 9월중으로 인쇄업자가 선정되는대로 발간할 예정이오니 저희 한인회로 회비와 동시에 성명을 한글, 영문으로 쓰시고 주소와 전화번호를 함께 6월15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한인회에 건의사항이나 교민을 위하여 도움이 될 사항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며 단합된 교민사회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장 박태호 배

한인회비 납부자 명단

|         |       |
|---------|-------|
| 방용철     | \$20  |
| 구범희     | \$100 |
| 김정부     | \$20  |
| 김정태     | \$20  |
| 김원택     | \$20  |
| Mullins | \$50  |
| 김영일     | \$20  |
| 김성배     | \$20  |
| 엄도승     | \$100 |
| 곽종세     | \$50  |

광고비

|          |      |
|----------|------|
| 코스모스 미용실 | \$30 |
| 조병규 치과   | \$60 |
| 백기완 소아과  | \$30 |



新 RESTAURANT  
Korean Japanese Cuisine  
羅 Shilla

- 즉석 불고기, 곰탕, 보쌈김치, 스시바
- 연회석 완비, Cocktails, 파킹장 무료
- 연중무휴(11-10시), 토·일 오후1시~10시

2300 8th Ave(corner of Denny & 8th Ave)  
623-9996, 223-9289



아모레 화장품

BEAUTY CONSULTANT  
KYU JUNG LEE

이규정

17835 WAYNE AVE. N., SEATTLE, WA. 98133  
• RES. (206) 542-6387

## 전두환 대통령 내외분

### 시애틀 방문

전두환 대통령 내외분 그리고 정부 각료 및 정주영 경제인 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일행이 유럽 4개국(영국, 폴란드, 서독 그리고 벨지움)을 공식 방문하고 귀국하는 길에 이곳 시애틀을 4월 18일 오전 9시 50분 시택공항 도착, 시애틀 다운타운에 있는 웨스틴 호텔에 여장을 풀고 부스가드너 주지사가 베푸는 오찬과 저녁에는 교민초청 리셉션을 가졌다.

서북미지역 300여명이 초대된 리셉션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많은 어려움을 참고 이곳에서 열심히 잘사는 동포를 보니 기쁘다고 말하고 조국이 잘되어야 이민은 여러분들도 자부심을 갖고 살수 있으니 서로 잘 융화 단결하여 우리 민족의 힘을 과시하고자 했으며 박태호 회장은 환영사를 통하여 전두환 대통령 내외분의 시애틀 방문을 환영한다고 전제한후 시애틀은 서북미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및 무역의 요충지로 동아시아와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약 5만의 교포가 열심히 살고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워싱턴주는 우리나라와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 대통령 내외분의 이곳 방문은 교포이민사에 남을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대통령 내외분과 수행한 일행은 많은 교포들의 환송을 받으며 4월 20일 오전 11시 10분 시택공항을 출발 귀국하였다.

-편집부-



### 86년도 1/4 분기 재정보고 (3월말 현재)

#### 입 금

|              |                   |
|--------------|-------------------|
| 회장단          | \$2,000.00        |
| 이 사          | \$700.00          |
| (\$900 입금예정) |                   |
| 한인회비         | \$1,460.00        |
| 광 고 비        | \$630.00          |
| 조찬기도회및       | \$150.00          |
| 기타 찬조금       |                   |
| <b>총 계</b>   | <b>\$4,940.00</b> |

#### 지 출

|             |                   |
|-------------|-------------------|
| 인쇄비(회보발행포함) | \$1,583.85        |
| 우편요금        | \$614.92          |
| 사무실 사용료     | \$790.00          |
| 전화사용료       | \$184.32          |
| 한인회 행사비용    | \$796.53          |
| 기타          |                   |
| <b>총 계</b>  | <b>\$3,869.62</b> |

## 한인회 소식

### ● 역대 이사임원 초청 간담회

지난 3월 29일(토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 30분까지 김영남 총무부장의 사회로 Lynnwood에 있는 Best Western Hotel 에서 이사 임원 부인들이 준비한 음식으로 Dinner Party 를 겸하여 김간난 여사와 이선복씨, 전계상 박사 등 순으로 그당시와 현재 한인회에 부탁 및 앞으로 발전에 관하여 한분씩 나와서 이야기 하였다.

이현기 회장은 그당시를 회고하면서 현재 한인회 명칭이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으로 된 경위를 설명했으며 구범회 회장과 양태승 전임 간부는 회관건립 기금을 모금하는데 전임회장들이 앞서자고 했으나 결론은 없었고 이선복, 전계상 회장은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였다.

또한 특별히 초대받은 안세훈 총영사는 전두환 대통령의 4월 18일 시애틀 방문에 관하여 소개하였다. 이날 만찬에는 초대 이창희씨 부인되는 김간난 권사, 이선복, 전계상, 이현기, 한만섭, 구범회, 신호범, 강동언, 오계희, 오준걸 등 역대회장과 김정부, 엄도승, 이동립씨 부인 등 역대 이사장과 현재와 과거 이사 임원 등 80여명이 부부동반으로 참석하여 선후배간에 화기에 찬 시간을 가졌다.

이자리에 참석못한 회장은 김성길, 김형진, 조성욱, 엄명보, 정철식 등이며 박태호 회장은 선배들의 격려와 수고해주신 이사 임원 부인들 특히 구경빈 부녀부장께 감사함을 표시하였다.



### ● 한인회장배 제6회 볼링대회

4월 26일 저녁 6시부터 10시 30분까지 Greenwood Ave N 103 St 에 있는 Greenwood 볼링장에서 한인회장배 제6회 볼링대회를 가졌다. 최다수 Spare 상에 유우종, B조 1등에 이태휘, 2등에 인덕환, 3등에 홍준호, 개인상은 박승호(평균 217점)씨에게 돌아갔다.

이 대회는 워싱턴주 한인 볼링클럽 주관(회장 송면식)으로 A,B조로 했는데 45명의 선수가 참가, 열띤 성황리에 A조 1등에는 박승호, 2등 윤영근, 3등 장명식, 4등 허남일, 5등 송태호 였고 여자도 5명이 참전했으나 등수에는 미흡했다. 이 대회에는 박태호회장, 임광희 부이사장, 윤광남 부회장과 이승우 체육부장이 참석, 수고하였다.

## 한일각

Hanil Korean Restaurant

KOREAN ROYAL CUISINE • COCKTAIL LOUNGE  
LIVE ENTERTAINMENT

409 MAYNARD AVE SO  
SEATTLE, WA 98104

587-0464

EUNG H SHIN  
OWNER



## 제 일 식품

The First Oriental Grocery Store  
[Oriental Foods & Gifts]  
Seattle Heights Center

Joo Chan, Chai  
대표 최주찬

21405 HWY 99 (Suite A)  
LYNNWOOD, WA 98036  
PHONE: (206) 774-4103

★ 한인회비를 납부하여 우리교포사회 상부상조 합시다.

★ 회비는 가족당 \$20.00



인캄택스  
기업장부정리  
경영자문  
재무제표작성  
회계감사

공인회계사 김 용 철  
Paul Y. Kim, CPA

Metropolitan Bldg.  
11065 5th Ave. N.E., Suite B  
Seattle, WA 98125

(206) 363-5730

# 3만여교포가 「和合의 불씨」 불어넣고...

## 한인컴뮤니티



### 쑤대통령 訪問... 특별좌담회

#### ■ 참석자 ■

- ▲박태호씨 (한인회 회장 · GTE 근무)
- ▲윤광남씨 (한인회 부회장 · 사업가)
- ▲임광희씨 (한인회 부이사장 · 수석학박사)
- ▲오준걸씨 (85년도 한인회장 · 건축설계사)
- ▲신용호씨 (한인회 이사 · 한일학사장)
- ▲심재환씨 (북부시애틀 총구회 부회장 · 자동차세일즈)
- ▲에릭·탐슨씨 (한인회장보좌관 · 사업가)

▲장소 : 시애틀 한인회  
▲사회 및 정리 : 심재환 기자

시애틀은 미국내에서도 손꼽히는 양반의 도시이다. 서북부4개주(워싱턴·오레곤·아이다호·몬타나)내에서는 가장 큰 도시이며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이면서도 LA와는 대조적으로 조용하다. 그래서인지 복잡하고 정치경제적으로 큰 이슈를 가진 국내의 정치가들이 미국을 할때에는 LA를 거치지 않고 조용하게 왔다가 조용하게 떠날 사람들은 시애틀을 택한다. 먼드·매넬리 출판사의 지명백과사전(The Place Rated Almanac)은 4년 연속 시애틀을 미국내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았다. 이러한 시애틀속에서 3만여명 인구의 한인컴뮤니티도 조용하게 성장해 나가고 있다. 전두환 대통령 내외가 유람방문을 마치고 시애틀에서 2박3일을 보내고 떠났다. 이에 맞춰 LA 지사에서 시애틀 한인사회와 산업·미래상, 워싱턴 대학 등 3회에 걸쳐 시리즈로 마련한 「시애틀 특집」을 전제한다. <편집자주>

한국발전과 교포사회발전은 밀접한 관계 타코마·밴쿠버韓人會와 유대관계 높이고 5만弗정도면 自營사업, 주택은 10만弗線 우리文化지키며 오로로街 韓人상가 형성

### 미국서 가장 살기 좋은 「양반都市」

▲오준걸씨 - 한 가지 이곳 한인회의 자랑거리인 커뮤니티내 존경받는 어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이창희선생을 비롯 서두수박사, 김간남여사, 전계삼박사, 한만섭박사들이 커뮤니티내 한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어른들입니다. -한교교포들이 시애틀에 살며 자랑거리로 느끼는 점은 어떠한 것을 들을 수가 있나요. ▲신용호씨 - 시애틀은 한국의 충청도라 할 수 있지요. 시애틀의 4가지 자랑거리로는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아름다운 경치 ▲값싼 물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생활하는데 돈 없어도 여유를 즐길 수 있어서인지 한인들도 돈을 벌었다는 욕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심재환씨 - 나도 시카고, 뉴욕, 휴스턴에서 살아보았지만 시애틀만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집안도 충청도 출신이어서인지 시애틀이 나한테는 가장 알맞은 도시 같습니다. 수많은 공원과 겨울에도 파릇파릇한 잔디는 시애틀의 또 하나의 자랑거리이지요. 교민들은 취미생활로

▲윤광남씨 - 세탁소·그로서리·리커스터·슈즈 리페어 등의 자영 비즈니스를 하는 한인들의 수도 상당수입니다. 시애틀에서는 5만달러 정도의 소자본으로도 자영사업을 할 수 있으며 10만달러정도면 훌륭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10월에도 30여 명의 그로서리업자들이 모여 「워싱턴주·한인그로서리협회」를 창설했습니다. -시애틀 한인회는 어떤일을 해왔으며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지요. ▲박태호씨 - 「조용한 한인회」를 모토로 내세우지만 「한국의 날」 「3·1절기념행사」 「8·15경축행사」 「아리랑의 밤」 등 다채로운 연례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준걸씨 - 지난 8월 다운타운에서 열린 시애틀 페어torch퍼레이드 (Sea-Fair Torch Parade)에 한인 청소년으로 구성된 Korean Drill Team이 참가, 당당히 2등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시애틀 한인청년들의 전제함과 우리의 고유성과 문화를 선보인 패거리지요. ▲임광희씨 - 시애틀이 서북부의 중심이듯이 시애틀 한인회도 서북부 지역에 있는 한인들을 대표합니다. 공식명칭도 시애틀-워싱턴주한인회 (Seattle-Washington Korean Association)로 인근타도시 한인회와 유대관계를 맺고 있으며, 캐나나, 밴쿠버시와도 매년 번갈아가며 합동체 육대회 및 야유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인구 2만의 타코마한인회와도 깊은 유대관계를 갖고있는데 축구부는 라스베가스까지 원정경기를 가기도 합니다. ▲박태호씨 - 86년도 한인회 주요사업으로는 주소득발간과 경로잔치 청소년캠프 및 SAT어름 학교실시, 1천세대한인회비납부및제인등을 연례사업이외에 꼽을 수 있습니다.

-시애틀한인컴뮤니티 역사와 형성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들려주시지요. ▲오준걸씨 - 1960년대 초반까지 한인들의 수는 30~40명 정도로 적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이창희·서재필 박사등이 있었고 전계상씨가 48년도에 해방후 제1호 한국인 유학생으로 워싱턴대학에 입학했지만 그수는 미미했습니다. 이창희선생이 67년도에 유학생중심의 친목단체로 한인회를 결성했습니다. ▲박태호씨 - 그후 보인경기와 알래스카전선 기지로 시애틀이 광장을 받으며 한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70년대 초반부터 한인 이민수가 급격히 늘어났는데 한인컴뮤니티발전이 일익을 담당했지요. 현재 3만명정도로 추산되는 한국인이 시애틀메트로폴리탄지역을 중심으로 에드먼드·베이크시티·페드몬트·린우드·페드럴웨이 등에 산재해 있으며, ▲신용호씨 - LA와 같은 한인타운은 없지만 40여개의 교회와 16개 한국마켓 12개 한국식당을 중심으로 한인대화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인들이 북부시애틀 모토로가를 중심으로 한인상가권을 형성중입니다. ▲윤광남씨 - 시애틀의 주산업은 보잉항공기계 제작사와 타드·록히드 등의 조선회사였으나, 70년대중반부터 조선회사들이 망하면서 타드·록히드·업야드에서 일하는 한인들에게도 파업 열풍이 불어닥쳤습니다. 80년대초반에는 타드로 떠나는 한인들도 많아졌습니다. ▲에릭·탐슨 -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회사 등의 컴퓨터산업의 발전과 천연자원을 이용한 관광사업을 주정부에서 중요산업으로 키우면서 시애틀경기는 80년중반 들어 서서히 회복중이지요. 서부최대빌딩인 76층짜리 플럼비아센터가 포함제철 삼성중공업의 힘을 빌어 최근에 완공

●5월9일 임원회의, 5월24일 축구대회  
5월9일 (금요일) 오후7시 임원회의가 있으며, 5월24일은 Woodland Park 에서 한인회 장배 축구대회가 있음으로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골프대회  
6월8일 Jackson Golf Course 에서 상공회의소 골프협회 주관 골프대회가 있음.

6월27일(금요일) 부터 6월29일까지 Northgate Mall 에서 International Ethnic Food Festival 에 참가, 불고기등 음식과 우리나라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 ●86년도 재외교포학생 단기교육(하계학교) 실시

문교부는 86년도 재외교포학생 하계학교 교육을 1986년 7월1일~7월14일(2주간) 국내 각 교육기관에 위촉하여 실시한다. 자라나는 우리 2세에 대해 조국의 문화전통과 한글의 우수함을 이해시키고 모국어를 심어주기 위해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많은 성원바랍니다. 지원서 및 자세한 안내는 총영사관에 문의바랍니다. (전화 206-441-1011, 1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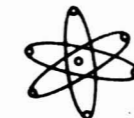
### ●Sat 여름학교 실시

한인회에서는 하기방학중인 7월 중순에 약 3주정도의 중,고교생을 위한 여름학교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문의는 한인회 사무실로 (362-4500)

### ●청소년 Camp 실시

한인회에서는 7월11일부터 7월14일까지 하기 청소년 캠프를 실시합니다. 보다 많은 참여로 자녀들의 정서함양에 보탬이 되었으면...  
장소 : Camp Berachah  
19830 SE 328th Pl Auburn, WA 98002  
Cabin 마다 12명 침식  
Indoor Swimming pool, Indoor Athletic Gym, Park Softball Field, Camp Fire, Athletic Field and Trails, Camp 안에 교회가 있음  
7월13일 주일예배가 있음.

\* 회비를 납부하여 주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K” TV and VIDEO

- 각종 T.V, V.C.R, 전속
- 열가봉사, 무료견적
- 27년 경력
- 신속 출장수리
- 월요일~토요일 (8 am~7 pm)

15200 Aurora Ave. N.  
Seattle, WA 98133

구연기  
364-2121



### 코스모스미용실

- \*남녀 헤어컷 \* 퍼머넌트
- \*메니큐어 \* 신부화장
- \*염색

월~토 오전 8:30~오후 7시

Next to FRED MEYER  
933 North 182nd St.  
Seattle, WA 98133

Mrs. 리  
(206) 546-4276  
For Appointment  
집 (206) 743-3587



### LEE'S AUTOMOTIVE

Foreign and Domestic  
☆ TIRES ☆

JEOM LEE 이점태  
Owner

(206) 362-4449  
(206) 364-8220

13281 Aurora Ave. N.  
Seattle, WA 98133

### 이석주

### S. J. LE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601 INDUSTRY DRIVE  
TUKWILA, WA 98188

(206) 575-0950



## Washington 주정부 Job 소개

| Position(직책)  | Closing Date(마감) | Application(보낼곳)  |
|---|------------------|---|
| State Examiner<br>월 \$1,392~1,782                         | 5/14/86          | Washington Dept of Personel<br>600 S Franklin St<br>Olympia, WA 98504 |
| Rehabilitation Reviewer<br>월 \$1,826~2,337                | 5/7/86           | 600 S Franklin St<br>Olympia, WA 98504                                |
| Instructional Program Director<br>\$2,992~3,830           | 5/7/86           | 600 S Franklin St<br>Olympia, WA 98504                                |
| Developmental Disabilities Specialist II<br>\$1,574~2,015 | 5/7/86           | 600 S Franklin St<br>Olympia, WA 98504                                |

## 제4회 한인회장배 쟁탈 교민 친선축구대회

본 한인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4회 한인회장배 쟁탈 교민 친선 축구대회를 개최 하오니 교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일 시 : 1986년 5월 24일 (토) 오전 8시  
장 소 : Woodland Soccer Play Field  
참 가 비 : 팀당 50불  
대회내용 : 장년부 (만35세 이상 1951년생 기준, I.D 지참바람)  
청년부 (나이제한 없음)  
연 락 처 : 한인회 사무실 (362-4500) 9시~4시  
대표자회의 : 5월 23일 (금) 오후 7시 한인회 사무실

주최 : 워싱턴주 시애틀 한인회  
주관 : 워싱턴주 시애틀 축구회  
후원 : 총영사관, 상공회의소, 워싱턴주 축구협회  
중앙일보, 한국일보, 제일식품, 쇼건, 한일각, 신라식당

회장 박태호

소아과  
알러지과

전문의 백기완

KIWAN PAIK, M.D.  
1570 N. 115th St. #16  
Seattle, WA 98133  
(206) 365-4533

영미정



榮味亭

YOUNG ME RESTAURANT

KOREAN & CHINESE CUISINE  
COCKTAIL LOUNGE (LIVE MUSIC)

7 DAYS A WEEK 11:00 AM - 2:00 AM

220 - 4TH AVE. S. SEATTLE, WA 98104 (206) 623-3112

## 공공기관 안내

|                     |                    |
|---------------------|--------------------|
| 총영사관(안세훈 총영사)       | 441-1011,1012      |
| 외환은행                | 622-7821           |
| 상사지사협회, 현대목재        | 455-0124           |
| 상공회의소(김홍열회장)        | 839-6161           |
| 중앙일보(이종완 지사장)       | 838-3155           |
| 한국일보(조병우 지사장)       | 282-0022           |
| 동아일보 시애틀지국          | 244-9930           |
| 타코마 한인회(신광재회장)      | 582-5478, 584-7121 |
| 포트랜드 한인회(임용근회장)     | 292-0899, 239-5200 |
| 시애틀 한인회 법률고문 이동훈변호사 | 622-5085           |
| EOC 서영민             | 725-8200           |
| 한인생활상담소(박귀희소장)      | 784-5691           |
| 교회연합회(박영희목사)        | 367-5858           |
| 시애틀 이민국             | 442-5956           |
| 의료및 치과 단체보험 안내      | 362-5651           |

### ● 해외결혼상담

YMCA 해외동포 결혼상담센터에서는 미혼남녀 및 재혼남녀의 결혼상담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구혼신청서가 필요하신분은 한인회 사무실로 연락바람. 362-4500.

### ● 한인회 사무실 상근직원 근무

한인회 재정절약 일환으로 한인회 사무실에 메디칼 인슈런스 오피스로 일부 대여하고, 상주 근무자를 두어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모든 한인회에 관한 교민들의 문의 사항에 답하고 있으니 한인회 사무실(전화 362-4500)로 연락바랍니다.

**EDDIE YOON**

(206) 582-7996

Attorney at Law  
변호사

P.O. Box 98861

Suite A-4, Sun Plaza Bldg.  
10209 Bridgeport Way S.W.  
Tacoma, Washington 98499

Seattle (206) 838-2889

### ● 화성군 출신의 주소를 알고저 합니다. (수원, 오산, 용인 등)

작년 6월에 킵카운티와 자매결연을 맺고 간 7명의 화성군 대표들은 이지역 교포들과 상부상조를 희망하고 있다. 금년에도 7월 14일에 킵카운티의 무역경제 협력단 약 40명이 방한하며, 가을에는 화성군 대표단이 이곳을 방문한다. 화성군 출신 교포들은 연락바람. 김현길 524-7776.



제 24 회 올림픽대회

1988. 9. 17 - 10. 2

서울

★ 한인회비를 납부하여 우리교포사회 상부상조 합시다.  
★ 회비는 가족당 \$20.00

조병규 치과

시 애틀 : 367-5570  
워드럴웨이 : 838-3180

꽃 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습니다!



모든 애경사에 전화만 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꽃에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디모인스꽃집 824-5920, 밤 243-5160

APRIL 1986

봉사

1988.9.17-10.2

제 24 회 뉴스 통령 기념회

© 1983 SLOOC All rights reserved TM



한인회보

SEATTLE • WASH STATE  
KOREAN ASSOCIATION  
GREENWOOD P.O. BOX 30065  
SEATTLE, WA 98103-0065

Non-Profit Org.  
U. S. POSTAGE  
PAID  
Seattle, WA  
Permit No. 919

한인회보 1986년 제4호  
발행인 : 박태호  
편집인 : 유준식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GREENWOOD P.O. BOX 30065  
SEATTLE, WA 98103-0065  
TEL: 362-4500

TO: HAHN, MAN-SOP  
12904 SE 45TH LANE  
BELLEVUE WA 98006

02940